

# 국어 ‘-ㄴ뎡’류 접속어미의 통시적 연구(2)\*

- 중세국어 ‘만뎡’의 특징과 그 역사적 변천을 중심으로 -

장 요약\*\*

1. 서론
2. 문제제기: 현대국어의 ‘-을망정’과 ‘망정’
3. 중세국어 ‘만뎡’의 형태·의미적 특징
4. ‘만뎡’의 통시적 변천 양상
5. 결론

## 1. 서론

이 글에서는 중세국어 ‘만뎡’이 쓰인 예문을 검토하여 그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서 ‘만뎡’의 통시적 변천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sup>1)</sup> 이 과정에서 현대국어의 접속어미 ‘-을망정’과 의존명사 ‘망정’의 상이한 의미 특성도 밝혀지리라 기대한다.

중세국어에서 ‘만뎡’은 분포나 기능 면에서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형태로서 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17908).

\*\* 계명대학교 국어국문학 전공 조교수.

1) 중세국어에서 ‘만뎡’의 문법적 지위는 선명하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립적 차원에서 붙임표 ‘-’를 붙이지 않고 ‘만뎡’으로 표시해 둔다. 또한 음운의 변화 관련해서 ‘만뎡’, ‘망정’, ‘망정’ 등으로 나타나는데, 표기의 편의상 중세국어 자료는 ‘만뎡’으로 표기하고 이후 자료의 경우는 ‘만뎡’을 대표형으로 쓰되 고소설이나 신소설 자료의 경우에는 ‘망정’, ‘망정’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만덩’이 홀로 쓰이는 일이 없고 항상 다른 형태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형태 분석의 근거와 ‘만덩’ 자체의 의미를 밝히는 일이 쉽지는 않다. 뿐만 아니라 매우 이질적인 통합 관계를 보이기도 하여 ‘만덩’의 문법적 범주를 규정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만덩’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허웅(1975)에서는 ‘명사+만덩’과 ‘-란디만덩’을 구분하여 전자의 ‘만덩’은 ‘-이라도’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로 처리하고 후자는 분석하지 않고 ‘-란디만덩’을 불구법 어미로 기술하였다. 백낙천(2004)에서는 ‘-을만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선행절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후행절을 연결하는 접속어미로 기술하고, 나아가 ‘-란디만덩’, ‘-르시만덩’의 ‘만덩’을 의존명사로 분석하였다.<sup>2)</sup> 하귀녀(2005)에서는 ‘-란디만덩’의 ‘만덩’을 보조사로 기술하면서도 ‘-란디만덩’을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로 보았다. 박용찬(2006)에서는 ‘-란디만덩’을 [조건][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로 기술하였다. 또한 ‘-을만덩’과 ‘명사+만덩’은 [양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각각 어미와 조사로 기술한 바 있다. 김유범(2007)에서는 중세국어 ‘-을만덩’이나 현대국어의 ‘망정’을 고려하면 ‘만덩’은 의존명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세국어의 ‘-란디만덩’은 15세기 공시적으로 하나의 어미로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어미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이처럼 ‘만덩’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나타나는 것은 ‘만덩’의 통합 관계가 매우 독특하여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중세국어의 후대형인 현대국어의 ‘망정’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상이한 두 가지 기능으로 출현한다. 아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일부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2) 백낙천(2004:174)에서는 ‘-을써덩’에서 ‘써’과 ‘만’의 대응 관계를 고려하면 ‘-을만덩’의 ‘만’을 의존명사로 분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을써덩’은 중세국어 ‘-을써니언덩’이 줄어들어서 ‘-을써덩’이 되었을 가능성이 큰 반면, ‘-을만덩’은 ‘-마니언덩’과 같은 형태가 확인되지 않아서 ‘-을써덩’과 ‘-을만덩’을 직접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가. -ㄴ망정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ㄴ’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고 뒤 절에 그와 대립되는 다른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앞  
 절의 사실은 가상의 것일 수도 있다. ‘비록 그러하지만 그러나’ 혹은 ‘비록 그러하다 하여도 그러나’  
 에 가까운 뜻을 나타낸다.

¶ 머리는 나뽀망정 손은 부지런하다

「비」-ㄴ지라도:-ㄴ지언정.

「참고 어휘」-을망정.

나. 망정

「의존명사」

((주로 어미 ‘-기에’, ‘-니’, ‘-니까’, ‘-어서’ 뒤에 쓰여))((‘망정이지’의 꼴로 쓰여))

괜찮거나 잘된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 우리가 한발 앞섰기에 망정이지, 읍내 지서에 연락이 되었다면 놈들이 지금쯤 여기로 몰려오고  
 있겠지? 『김원일, 불의 제전』

위 『표준국어대사전』의 예와 같이 현대국어에서 ‘망정’은 두 가지 양상을 보이는데, ‘망정’이 ‘-을망정’으로 쓰일 때는 평범한 접속어미로서 양보의 기능을 보이나 ‘망정’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의존명사로서 ‘괜찮거나 잘된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쓰인다. 그런데 이 ‘망정’의 상이한 두 기능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혹은 두 형태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그런데 현대국어 ‘망정’도 중세국어 ‘만뎡’의 의미 기능만큼이나 상이한 두 의미 기능의 관계를 풀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는 중세국어의 ‘만뎡’에 대한 분석과 의미 기능을 정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데에서 시작하였으나 현대국어 ‘망정’의 문제도 함께 접근하여 그 통시적 변천 과정까지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현대국어 ‘망정’의 구문을 검토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어서 중세국어 ‘만뎡’의 형태·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근대국어 문헌 자료를 찾아가면서 현대국어의 ‘망정’에 이르기까지의 통시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문제제기: 현대국어의 ‘-을망정’과 ‘망정’

이 장에서는 현대국어 ‘망정’의 쓰임에 대해 검토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한다. 현대국어에서 ‘망정’은 두 가지의 기능으로 구분된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 (1) 가. 촌에 살망정 세상의 흐름을 모르지는 않는다.  
 나. 함께 가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다. 실마리를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고춧가루는 뿌리지 말아야지.

위 (1)의 ‘-을망정’은 ‘-을지라도’ 내지 ‘-아도’로 교체 가능한 접속어미로서 선행절과 후행절을 양보의 관계로 이어주고 있다. 이때 후행절은 선행절의 조건 사태에 반대가 되거나 선행절의 사태에 따른 결과에 어긋나는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sup>3)</sup> 그런데 이 경우에 ‘-을망정’을 공시적으로 ‘-을’과 ‘망정’으로 분석하여 이해하기는 어렵다. 분석하게 되면 선행절과 후행절의 양보 접속 관계를 설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정’은 명사로서 관형사절 보문이 되는데 이에 대한 논항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의존명사로 쓰이는 ‘망정’도 확인된다. 아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예를 다시 제시한 것이다.

- (2) 가. 엄마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하마터면 아기가 크게 다칠 뻔했다. 『채만식, 소년은 자란다』  
 나. 아버지가 배 척이나 갖고 있으니 망정이지 돈 없으면 갈 데 없지 『박경리, 토지』  
 다. 우리가 한발 앞섰기에 망정이지, 읍내 지서에 연락이 되었다면 놈들이 지금쯤 여기로 몰려오고 있겠지? 『김원일, 불의 제전』

위 (2)의 ‘망정’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주로 ‘망정이지’ 꼴로 쓰여 ‘괜찮거나 잘된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의

3) 양보 접속문의 의미 범주에 대해서는 이기동(1977), 이은경(2000), 신지연(2004), 박재연(2009)을 참고할 수 있다.

존명사 '망정'이 지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첫째, 의존명사 '망정'은 선행 구성이 접속 구성으로 나타난다. '-기에', '-니', '-니까', '-어서' 등과 같은 원인 접속절이 선행하고 그 뒤에 '망정'이 통합하는데, 이처럼 의존명사가 접속어미 뒤에 직접 후행하는 일은 국어 문장 구성에서 흔치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둘째, 담화 차원에서 '망정'은 선행하는 원인 접속절에 대한 긍정적 결과 사태로서 해석된다. 이 긍정적 결과 사태를 풀어서 제시하면 '괜찮거나 잘된 일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인데 무엇에 대해 괜찮거나 잘된 일이라는 것은 담화에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2 가)에서 '엄마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망정이지'는 단순히 '엄마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라는 [원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원인 사태에 대한 결과를 함의하고 있는데 그 결과 사태는 후행절을 통해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후행절 '하마터면 아기가 크게 다칠 뻔했다.'를 통해 '엄마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크게 다치지 않았지**' 정도로 추론 가능하다.

셋째, 원인 접속절의 긍정적 결과 사태를 나타내는 '망정이지' 구성은 후행문과 반대되는 의미 관계를 이룬다. 즉, '망정이지' 구문은 [[원인+망정이지][조건+결과]]를 취하는 일이 많은데, 이때 '망정이지'는 후행하는 [조건+결과]의 결과 사태와 반대되는 사태를 나타낸다. 예컨대 (2 나)를 살펴보면 '아버가 배척이나 갖고 있으니 망정이지'는 뒤의 '돈 없으면 갈 데 없지'를 고려할 때 '아버가 배척이나 갖고 있으니 어디 갈 데가 있지'로 해석되는 선행절은 후행절 '돈 없으면 갈 데 없지'의 결과 사태와 반대되는 결과 사태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망정'의 의미 특성은 [긍정-부정]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미 '-지'와 자연스러운 통합을 이루는 것과도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고려해 보면, 현대국어 접속어미로 쓰인 '-을망정'과 의존명사로 쓰인 '망정'은 의미나 구문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기원적으로 '-을망정'과 '망정'이 중세국어 '만뎡'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두 형태의 쓰임 차이는 매우 크게 느껴진다. 다음 장에서는 중세국어 '만뎡'의 형태·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서 통시적 변천 과정을 검토할 텐데 그 과정에서 현대국어의 '-을망정'과 '망정'의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 3. 중세국어 ‘만덩’의 형태·의미적 특징

중세국어에서 ‘만덩’은 매우 독특한 통합 관계를 보인다. 그런데 그 출현 예가 그리 많지 않아서 ‘만덩’의 의미 기능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장에서는 ‘만덩’의 의미와 통합 관계를 고려하면서 그 특징적 사실을 기술하기로 한다.

우선 ‘-을만덩’으로 실현되는 예부터 제시하기로 한다.

- (3) 가. 부테 神足을 나토샤 宿命을 아라 지손 罪福을 다 念케 ㅎ야시닐 우리들  
히 모미 主盡만덩 모던 일 犯티 아니호리이다 ㅎ야닐(佛現神足令識宿命  
所作罪福普悉念之 我等寧沒身命不敢犯惡) <月釋25:32b>  
나. 하 옷 묻 얻거든 그 성마니 공 탭모시를 나디셔 ㅂ골만덩 고디 ㄷ마라  
<순천14:8>  
다. 저기 잡시 난브거든 개더기 공 비 ㅎ 피리 잇더니 그를 더 ㄹ만덩 모디  
것명디 ㄹ티 고오니 ㅎ여라 <순천131:12>  
라. 옥천 며느리는 눈 스이 잠간 ㄹ만덩 양즈 모양은 쇠 편 ㅎ고 제 슬겅  
고 사도닐 일워 살 사르미니 깃브다 <순천30:1>

중세국어에서 ‘만덩’은 위 (3)과 같이 ‘-을만덩’ 구성으로 나타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이때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양보]의 의미 관계가 나타난다. 즉, 선행절의 조건 사태에 반대되거나 선행절의 사태에 따른 결과에 어긋나는 관계를 보이는 데, 가령 (3 가)는 부처의 말에 네 금시조왕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으로 “우리들이 몸이 죽을망정 나쁜 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정도로 해석된다. 이 예에서 ‘죽을망정’은 ‘죽어도’로 교체 가능하다. 한편, ‘-을만덩’을 ‘-을 # 만덩’의 관형 구성으로 처리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을만덩’이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점이나 구문적으로 관형 구성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온당하지 않으며 ‘-을만덩’을 통합형어미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을만덩’의 [양보] 의미와 함께 시제 해석에 흥미로운 점이 확인된다. (3 가, 나, 다)와 (3 라)가 보이는 시제 해석의 차이인데, (3 가)는 “우리들이 몸이 죽

을망정 나쁜 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정도로서 선행절 사태가 [미정 사태]와 [양보]로 해석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3 나, 다)도 [미정사태]와 [양보]가 모두 해석된다. 이 (3 가, 나, 다)는 선행절에 미래 사태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정]의 의미는 관형사형어미 ‘-을’과 관련해서 합성적 해석이 가능하다.<sup>4)</sup>

그런데 (3 라)는 “옥천 머느리는 눈 사이가 잠깐 어려도 양자 모양은 아주 편안하고.....” 정도로 해석되는데 이때 선행절이 [기정 사태]와 [양보]로 해석되는데는 점에서 (3 가, 나, 다)와 차이를 보인다. 이 [기정 사태]의 해석은 ‘-을만뎡’의 기원적 형태와 관련해서 볼 때 ‘-을만뎡’의 [양보] 의미가 관습화하여 개별 의미로 확립되는 문법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5)</sup>

다음은 접속어미에 직접 통합한 ‘만뎡’의 예이다.

(4) 가. 서늘히 陰山엿 누니 느리고져 흐느니 가디 몬흐란디만뎡 漢사 마스랏 쟈이 업디 아니흐니라(脩欲下陰山雲 不法非無漢署香) <杜詩14:16a>

나. 고기잡는 비 놀요물 보노라 흐야 白日이 올마 가드록 흐시란디만뎡 늘근 녀름짓는 노몬 므스 거시 이셔 서르 즐교물 다흐리오(看弄漁舟移白日 老農何有磬交權) <杜詩22:7b>

(5) 가. 어르므로 여를 쁘란디만뎡 아기내도 몬 미쳐 보리러니라 <순천169:3>

나. 일 오니는 네 제 해 불식만뎡 녀름 아니 지을 저그란 드려 잇거라 <순천147:8>

다. 뵈 빨 것도 보내던돌 아므려나 뿌일 거술 다몬 더디여만뎡 요흐란 그리호마 <순천147:12>

위 (4)와 (5)는 각각 『두시언해』와 『순천김씨언간』 자료인데, 두 자료가 문학

4) 의미의 합성성의 원리(principle of compositionality)에 관한 논의는 주로 단어 형성 혹은 등재 관련한 논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김윤신(2013), 정한데로(2014)], 최근 박재연(2015)에서는 어미의 의미 합성적 해석, 비합성적 해석 등에 대해서 다룬 바 있다.

5) 한편, ‘-을써뎡’/‘-을 뿌니언뎡’, ‘-을션뎡’/‘-을 시언뎡’의 형태적 구성을 고려했을 때 ‘-을만뎡’의 ‘만뎡’도 더 분석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으나 그와 관련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만뎡’을 더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과 인간이라는 점에서도 ‘-란디만덩’, ‘-을시만덩’, ‘-어만덩’의 출현이 흥미롭다. 그런데 위 (4)와 (5)는 앞서 현대국어에서 검토한 의존명사 ‘망정’과 유사하게 접속어미 뒤에 ‘만덩’이 통합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의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란디만덩’의 경우는 형태적으로 볼 때 ‘-란디’에 ‘만덩’이 통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의미가 [양보]로 해석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sup>6)</sup> (4 가)는 “서늘히 음산에 눈이 내리려고 하여서 가지 못할망정(못해도) 漢나라 관청의 향기가 없지 아니한다.” 정도로 해석된다.<sup>7)</sup> (4 나)도 “고기 잡는 배의 놀이를 보느라고 白日이 옳아가도록 하실망정(하여도) 늙은 농부 무엇으로 서로 즐거움을 어찌 가질 수 있겠는가?” 정도로 해석된다. (5 가)는 “얼음으로 열을 쓸었으니 망정이지 아기내도 미처 보지 못했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된다. 병환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가 기운이 나지 않아 가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적은 장면이다. 즉, 원인 ‘-란디’에 ‘만덩’이 결합하여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sup>8)</sup>

한편, ‘-을시만덩’과 ‘-어만덩’의 경우는 각각 ‘-을시’에 ‘만덩’이, ‘-어’에 ‘만덩’이 통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도 [양보]로 해석된다. (5 나)는 “일 온 사람은 너나 지나 헤아려 불망정(보아도)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데리고 있거라.” 정도로 해석된다. (5 나)가 ‘-을시만덩’이 형태적으로 원인의 접속어미 ‘-을시’에 ‘만덩’이 통합한 것이지만 ‘-란디만덩’과 동일하게 [양보]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5 다)는 “베 짤 것도 보냈더라면 어떻게든 짜게 했었을 텐데 더덜망정(더디어도) 요는 그리 하마.” 정도로 해석된다. 이때도 ‘더디어만덩’은 ‘더디-+-어+만덩’으로 분석되어 접속어미 ‘-어’에 직접 통합한 경우인데 이때도

6) 중세국어 ‘-란디’는 이기문(1972)에서 ‘-을 것이면’ 정도로 해석하여 가정의 접속어미로 다룬 바 있고, 허웅(1975)에서도 ‘조건이나 가정’의 접속어미로 기술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재영(1996:165-182)에서는 화자 또는 주체가 경험했거나 또는 과거의 확실한 사실로 인식한 내용을 담화 전제하고 후행문의 내용이 선행문에서 전제된 내용의 범위 안에서 이유나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하여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어미로 설명하고 있다.

7) 허웅(1975:392, 579)에서는 ‘-란디만덩’을 ‘앞 긍정, 뒤 부정’의 의미로 파악한 바 있다.

8) 하귀녀(2005)에서는 ‘-란디만덩’에 보조사 ‘만덩’이 통합하여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으나 접속어미 뒤에 직접 통합한 이유로 ‘만덩’을 보조사로 처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양보]의 의미로 해석된다.

위 (4)와 (5)의 '-란디만뎡', '-을시만뎡', '-어만뎡'은 모두 [양보]의 의미로서 선행절과 후행절을 양보 관계를 잇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때 '만뎡'을 공식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이 (4)와 (5)의 접속 구성에서 '만뎡'을 제외했을 때 문장이 성립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만뎡'을 제외한 형태에서 [양보]의 의미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만뎡'이 명사에 직접 통합한 경우이다.

(6) 가. 이 水想이니 일후미 第二觀이라 이 想 일찌기 낫나치 보물 ㄱ장 물궂물  
ㄱ시 ㅎ야 누늘 ㅼ겨나 ㅼ겨나 ㅎ야도 일톨 마라 밥 머궂 덜만뎡 長常  
이 이룰 생각하라 <月釋8:8b>

나. 당단 ㅼ ㄴ ㅅ ㅅ 와셔 ㅼ셔 다 ㅼ고 비천셔는 ㅼ ㅅ든 ㅼ만뎡 ㅎ 줌도 아  
니 와셔니 ㅅ독 이런 □□셔니 ㅼ만일쇠 <순천82:14>

위 (6)은 '만뎡'이 명사 '덜'과 '말'에 통합한 경우로서, 허웅(1975)의 지적처럼 보조사 '-이라도'에 가깝다. (6 가)는 “(중략) 밥 먹을 사이라도 항상 이 일을 생각하라.” 정도로 해석되고 (6 나)는 “(중략) 배천셔는 ㅼ ㅅ든 ㅼ만일지라도 한 줌도 오지 않았으니 (중략)” 정도로 해석된다. 즉 이때 '만뎡'은 '다른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의미로서 보조사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때도 [양보] 해석이 가능하다. 가령, (6 가)에서 '(중략) 밥 먹을 사이라도'는 밥 먹을 때에는 머리를 잠시 식히는 것이 예상되는 결과이지만 밥 먹을 때에도 일을 생각해라는 것은 예상되는 결과와 다른 결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양보]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중세국어에서 '만뎡'은 세 가지 유형적 특성을 보인다. 첫번째는 [관형사형어미 '-을' + '만뎡']의 형식이다.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관형 구성이 [양보]의 의미가 관습화하여 굳어진 형식으로 [양보]의 의미를 가진 접속어미로 쓰인다. 그런데 15세기 공식적으로 이 형태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을만뎡'의 선행절이 [미정사태][양보]를 나타내는 것과 [기정사태][양보]를 나타내는 예도 확인된다. 다음은 [접속어미 '-란디', '-을시', '-어' + '만뎡']의 형식이다. 이 유형도 접속어미에 '만뎡'이 결합한 형식으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도 공시적으로 ‘만덩’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은 [명사 + ‘만덩’]의 형식이다. 이 경우는 앞서 살펴본 ‘만덩’의 예와 다르게 명사에 직접 통합하며 ‘다른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정도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접속어미보다는 보조사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세 유형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모든 유형에서 [양보]의 의미가 모두 도출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앞서 검토했듯이 이 세 유형에서 공시적으로 ‘만덩’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만덩’이 결합된 구성에서 [양보]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것은 ‘만덩’이 [양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한편, 아래는 ‘만덩’이 나타난 매우 특이한 경우이기에 제시해 두기로 한다.

(7) 나는 못 가만덩 도히 인노라 <순천132:2>

위 (7)은 ‘만덩’이 동사에 직접 통합한 것처럼 보이는 예로서 “나는 못 갈망정 잘 있다.” 정도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만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통합이라서 매우 난감하다. 이와 관련해서 백낙천(2004:173)에서 위 (7)과 같이 ‘만덩’이 동사에 직접 통합한 예를 제시한 일이 있다. 그러나 백낙천(2004:173)에서 제시한 “우리들히 모미 주그만덩” <月釋25:32b>은 문헌을 다시 검토한 결과 ‘주글만덩’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위 (7)의 경우는 ‘가만덩’으로 표기된 것으로 주의가 요구되는데 현재로서는 앞서 검토한 ‘만덩’의 출현과는 매우 이질적일 뿐 아니라 그 의미도 ‘갈망정’에 매우 가까운 사실을 고려해 ‘갈만덩’의 오기 정도로 이해되는데,<sup>9)</sup> ‘-어만덩’을 고려한다면 ‘가+아만덩’으로도 분석 가능하다.

#### 4. ‘만덩’의 통시적 변천 양상

근대국어 자료에 나타난 ‘만덩’은 ‘만덩’, ‘만정’, ‘망정’ 등과 같은 순서로 나타

9) 조항범(1998:132-133)에서도 ‘갈만덩’으로 표기되어야 정상이라고 기술하였다.

나는데<sup>10)</sup> 주로 구어적 성격이 드러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란디만덩’과 ‘을식만덩’의 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8) 가. 막대 디퍼 돈노미 뭇 툃기에 妨害란디만덩 이 부러 무를 여회우미 아  
니니라(枝藜妨躍馬不是故離群) <杜重13:49a>

나. 스스로 이 뭇 남기 어즈러이 紛紛란디만덩 海棕은 어느 모미 무레 특  
出호몰 알리오(自是衆木亂紛紛海棕焉知身出群) <杜重18:20a>

다. 그제야 동성이 드러와 드러가라 하더라 병을 드러 인스톨 모롤시만덩 욱  
이 비경하여 데면헌 병이면 차마 못 나갈니라 <계축下:22b>

(8 가, 나)는 ‘란디만덩’의 예이고, (8 다)는 ‘을식만덩’의 예이다. (8 가)는 “막대를 짚어 다니는 것이 말 타기에 방해일망정(방해일지라도) 일부러 무리를 여의는 것이 아니다.” 정도로 해석되고, (8 나)는 “스스로 이 무리의 나무가 어지럽게 분분할망정(분분할지라도) 해중은 어찌 몸이 무리에서 특출함을 알겠는가?” 정도로 해석된다. 이때 ‘란디만덩’은 중세국어에서 보이는 ‘란디만덩’과 같이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 (8 다)도 “그제야 동생이 들어와 데려가라 하더라. 병이 들어 인사를 모르기에 망정이지 욱이 비경하여 웬만한 병이면(심하지 않은 병이었다면) 차마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란디만덩’이나 ‘을식만덩’은 근대 후기에 와서는 찾아보기 어렵다.<sup>11)</sup>

그런데 다음과 같은 ‘-어야만덩’이 근대 후기에 오면서 빈번하게 확인될 뿐 아니라 그 의미가 아주 흥미롭게 해석된다.

(9) 가. 너히 너인들이 대군을 수이 나시게 혀야만덩 흥혀 더디 내여 주오시면  
너히 너인니 겨레 아오르 죽을 거시니 알라 하더라 <계축上:32b>

10) ‘만덩’, ‘만정’, ‘망정’ 등에서 확인되는 ‘ㄷ’가 ‘ㅈ’의 변화는 구개음화 현상으로 이해되거나 음절말의 ‘ㄴ’이 ‘ㅇ’으로 변화한 것은 흥미롭다.

11)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두시언해』 중간본의 경우는 근대국어 예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셨는데 옳은 지적이나 본문 (8 가, 나)의 예문이 초간본 『두시언해』(1481)에는 확인되지 않고 중세국어 쓰임과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논지 전개의 문제가 없으므로 근대국어 자료에 포함하여 제시해 두기로 한다. 위 (8 가, 나)를 중세국어 예로 처리하기도 어려움이 있다.

- 나. 너희 우리 들니오면 대군을 아니 내여 주오실 거시니 도흔 늦츠로 어서  
어서 드러가 엿즈와야만덩 힝혀 설운 늦츠로 가면 다 죽게 허리라 <계축  
上:34a>
- 다. 너 곳 이제 모르노라 흐면 우리를 다 죽일 거시니나라<sup>11</sup>는 은정이 등커  
니와 어버이를 싱각디 아니 흐는다 네 이제 무복을 허라 허여야만덩 못  
홀다 흐면 네 압히셔 죽으리라 <계축下:10b>
- 라. 이제 남은 니인이 고요히 드러 일종 내 말을 조차야만덩 그틀일 곳 이시  
면 명시 정형홀 거시니 아리시라 <계축下:17a>

위 (9)와 같이 ‘-어야만덩’ 구성이 『계축일기』에서 몇 예가 확인되는데, 그 의  
미가 ‘만덩’이 통합한 중세국어 형태와는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 것이 주목할 만  
한 점이다. (9 가)는 “너희 나인들이 대군을 빨리 나시게 하여야지(하여야 망정  
이지) 행여 더디 내어보내시면 너희 나인들 (모두) 함께 죽을 것이니 알라 하더  
라.” 정도로 해석되고, (9 나)도 “너희 울음소리가 들리면 대군을 안 내어주실  
것이니 좋은 낮으로 어서 빨리 들어가 여쭈어야지(여쭈어야 망정이지) 행여 서  
러운 빛을 보이거나 하면 다 죽게 하리라.”로 해석되어 ‘-어야만덩’이 [양보]와  
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요컨대 위 (9)의 ‘-어야만덩’은 현대국어의 ‘망정’이 쓰인 의미와 아주 유사하  
다. 또한 후행절이 [조건-결과] 구성을 취하고, 담화 차원에서 후행절과 반대되  
는 선행절의 결과 사태가 추론된다는 점에서도 현대국어의 ‘망정’ 구문과도 매우  
흡사하다. 가령, (9 가)는 “너희 나인들이 대군을 수이 나시게 허여야만덩”과  
“힝혀 더디 내여 주오시면 너희 니인니 겨레 아오르 죽을 거시니”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때 선행절은 후행절의 ‘~면 ~죽을 거시니’를 고려할 때 ‘~허여야  
~살 거시니’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 즉, 선행절에 대한 긍정적 결과 사태가  
담화 차원에서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문적 특징은 (9 나~라)도  
모두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이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어야만덩’은 [조건]과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면서 후행절과 반대 관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을 취한다  
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경우에 ‘-어야만덩’을 단순히 [조건]으로만 파악한다면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는 성립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sup>12)</sup> 문장의 의미가

12) 위 ‘-어야만덩’은 현대국어의 “웃이 깨끗해야지 웃이 더러우면 식장에 들어갈 수 없다”와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이와 같이 '-어야만덩'에서 추론되는 [긍정적 결과]는 이 접속 문장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하다.<sup>13)</sup> 후행절에 제시된 결과 사태와 반대되는 사태를 함축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화자의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 (9)와 같은 구문에서 선행절의 [긍정적 결과]를 정확히 추론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9)의 '-어야만덩' 구성에서 [긍정적 결과] 사태를 추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이 [긍정적 결과]는 문법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함축적 의미의 관습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어야만덩'에서 [긍정적 결과]가 빈번히 추론되면서 [긍정적 결과]의 의미가 해당 형태에 추가되어 '-어야만덩'의 재분석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예도 매우 중요하게 보인다.

(10) 가. 닐오더 오늘 밤의 반드시 이 사람을 자바야만정 그러티 아니흐면 니일 새배 그디 화를 니브리 <太平40b>

나. 너희들이나 잘 메여 먹고 사라라 도모지 말을 아니흐려 흐기의만덩 이거 술 메고 가라는 내가 열업손 바삭의 아들이지 그 말 흐야 무엇흐리 <춘향전\_\_도남문고본4:16a>

위 (10)은 고소설에 나타난 예로서 '만덩'의 후대형인 '만정'이 통합한 예들인데, (10 가)는 '-어야만정'의 예이지만 (10 나)는 '-기의만정'으로 원인의 '-기의'에 '만정'이 통합한 예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

같은 문장에서 보이는 '-어야지' 특성과 아주 유사하다. 그런데 이때 '-어야지'는 “옷이 깨끗해야지 식장에 들어갈 수 있다.”의 '-어야지'와는 다른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지'를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는 '-지'를 생략해도 문장 성립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 '-어야지'에 대한 연구도 보다 정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3) '-어야만덩' 접속 구성에서 보이는 선행절의 결과 사태는 후행절의 결과 사태와 반대되는 의미 관계를 취하는데 이는 중세국어의 'x+만덩'이 기원적으로 [양보]의 의미를 지닌 것과도 관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양보]는 선행절의 조건 사태에 반대되거나 선행절의 사태에 따른 결과에 어긋나는 사태가 후행절에 제시되기 때문에 양보 접속문의 경우는 선행절의 조건 사태에 대한 논리적 결과가 추론된다. 이러한 의미적 특성은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긍정적 결과]와 깊이 관련된다.

(10 가)는 앞서 검토한 (9)와 같은 ‘-어야’에 ‘만당’의 후대형인 ‘만정’이 통합한 예이다. 이 경우도 ‘-어야만정’을 기준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이 구분이 되고 후행절은 [조건-결과] 사태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선행절은 조건 사태 구성만 문면에 나타나지만 담화 맥락적 측면에서 조건 사태에 대한 결과 사태가 추론이 되며 그 결과 사태는 후행절에 대한 반대의 결과 사태로서 긍정적 성격을 띤다. 이를 감안할 때, (10 가)는 “말하되, 오늘 밤에 반드시 이 사람을 잡아야 망정이지(화를 입지 않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일 새벽에 그대 화를 입으리.” 정도로 해석된다.

(10 나)는 ‘-기의만당’ 구성으로 원인의 ‘-기의’에 ‘만당’이 통합한 예이다. (10 가)와 달리 원인의 ‘-기의’에 ‘만당’이 통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10 나)는 상어를 멘 사람이 ‘너너 네화 네화 네화’와 같은 선소리를 하자 옆에 있던 사람이 뺨을 때려 맞고 억울함에 속말을 하는 장면이다. “너희들이나 잘 메여 먹고 살아라 도모지 말을 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이것을 메고 가려는 내가 열없는 바삭의 아들이지 그 말을 하여 무엇하리.” 정도로 해석된다. 이 장면에서 ‘ㅎ기의만당’은 단순히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후행문의 부정적 결과 사태와 반대되는 긍정적 결과 사태를 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을 단순한 [원인]으로만 파악한다면 선행문과 후행문의 의미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위 (10)의 예 중에서 원인의 ‘-기의만당’이 특히 주목을 끄는데, 이 경우에는 조건과 논리적 관계가 유사한 원인의 ‘-기의’에 ‘만당’이 통합했다는 점과 선행절에 대한 결과 사태가 추론이 된다는 점이 ‘-어야만당’과 유사하고, 무엇보다 추론되는 결과 사태는 후행절의 결과 사태와 반대되는 [긍정적 결과]를 함축하고 있는 점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위 (9)와 (10)의 예를 통해 볼 때, ‘-어야만당’ 접속 구성에 추론되는 선행절의 [긍정적 결과]는 ‘-어야만당’의 문맥에서 매우 빈번하게 추론되면서 이 추론되는 함축적 의미가 관습화하여 개별 의미로 확립되어 ‘만당’의 재분석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정리하면, ‘-어야만당’의 [조건]·[긍정적 결과]가 분석적으로 인식되어 [조건어미+만당]과 유사한 논리적 인과관계를 가진 [원인어미+만당]에 확장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접속어미+만당]의 ‘만당’이

[긍정적 결과]를 가진 형태로 재분석된 것이다.

‘만당’의 의미 단위 인식과 관련하여 아래 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 (11) 가. 이 놈아 정신 좀 차려라 니가 누군고 하니 내가 죽인 금년 아비다 이 놈아 바로 말을 히야 망정이지 일호라도 은혜를 하면 당장 네 비를 같으고 간을 니여 씹을 터이다 <목단화 152>
- 나. 여보 이 낭반 잠간 보와도 인스체면은 알 듯헌디 무인반야에 너즈 혼즈 잇는 방에 돌입혀 비례지언을 막우하니 지금은 범률이 엷는 줄 아오 진작 나가야 망정이지 줄못하다가는 큰일을 당허리다 어서 닝큼 나가오 <목단화 63>
- 다. 여보 공연히 이리지 말고 내 계집을 어서 니여노으시오 더분이밋헛나 실성을 헛았나 덕 계집이 누구인디 내게 와서 니여노으라시오 절문 량반이 경계 업시도 함부루덤병이오 니 계집 나 찾는 것이 경계가 안이오 공연히 진작 니여노아야 망정이지 그러치 안타는 도치 못허리다 <비파성99>
- 라. 시어머니께 꾸중을 두토 남편의게 치의를 바다 자쳐라도 허라고 마음을 먹엇더니 다형이 충의 잇는 하인이 잇서 제가 도적 성명을 뒤집어 쓰기도망을 헛 고로 겨오 급흔 화를 면헛앗길니 망정이지 그러치 안터면 별서 쫓겨 갓습니다 <재봉춘 79>

위 (11)은 신소설 자료로서 ‘망정’에 계사와 어미 ‘-지’가 통합한 형식이 출현한 경우이다. (11 가, 나, 다)는 ‘-어야 망정이지’ 형식이고 (11 라)는 ‘-길니 망정이지’ 형식이다. (11 가, 나, 다)는 ‘망정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선행절이 조건의 ‘-어야’로 구성되어 [조건-망정이지]를 취하고 있으며 후행절은 [조건-결과]를 취하고 있다. 이때 [조건-망정이지] 구성에서 ‘망정이지’는 선행 조건에 대한 결과로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이 긍정적 결과 사태는 후행문의 결과 사태와 반대되는 의미 관계를 보인다. 가령, (11 가)의 “이 놈아 바로 말을 히야 망정이지 일호라도 은혜를 하면 네 비를 같으고 간을 니여 씹을 터이다”은 [[이 놈아 바로 말을 히야 망정이지][일호라도 은혜를 하면 네 비를 같으고 간을 니여 씹을 터이다]]처럼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은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망정이지’는 후행절의 결과 사태에 반대되는 사태를 나타내고 있다.

위 (11)의 ‘망정’은 계사와 ‘-지’가 통합한 것만 제외하고는 위 (9)와 (10)의 의미 특성과 같다. 즉, 위 (11)은 예문 (9), (10)과 달리 ‘망정’ 뒤에 계사와 접

속어미 ‘-지’가 통합한 것뿐이다. 이는 ‘망정’을 [긍정적 결과]의 의미로 인식하여 분석한 것을 말해주는 자료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망정’의 [긍정적 결과]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괜찮거나 잘된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풀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을망덩’(을만정)은 중세국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양보]의 의미로서 사용되었다. 아래 예를 보자.

- (12) 가. 술 두 병을 남의게 어들만덩 도흐니로 두 병을 보내소 <곽씨18-5>  
 나. 술도 잇는 양으로 보내소 업거든 어들만덩 서너 병이나 보내소 <곽씨 110-14>
- (13) 가. 탁문군의 봉구황이 고금이 다롤만덩 인심이야 다롤소나 <춘향전\_\_도남문 고본4:22b>  
 나. 꿈이로다 꿈 아니면 이 몸이 죽엇도다 혼일만정 또 왓다니 반가왜라 <춘향전\_\_경관35장본:31a>  
 다. 비금 중에 형테는 비록 적은 죽속일망정 청념흐 것과 신이 잇는 거스로 본리 칭찬을 듯는 새로소이다 <경세종 81>

위 (12)는 『현풍곽씨언간』의 예이고 (13 가, 나)는 고소설, (13 다)는 신소설의 예이다. 이들 예에서 ‘을망덩’은 [양보]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12 가)는 “술 두 병을 남에게 언더라도 좋은 것으로 두 병을 보내소”, (12 나)는 “술도 잇는 양으로 보내소, 없어서 언더라도 서너 병이나 보내소.” 정도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중세국어의 ‘만덩’은 근대국어 시기에 음운변화와 함께 그 쓰임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을만덩’의 경우는 [양보]의 의미가 그대로 근대국어에까지 이어왔으나 ‘란디만덩’이나 ‘을시만덩’은 근대국어에 와서 점차 소멸의 시기를 걷게 되었다. 한편, ‘-어야만덩’은 새롭게 발달한 형태로서 흥미로운 변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어야만덩’이 접속구성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을 잇는 접속어미로 쓰일 때 [~해야 망정이지 ~하면 ~어떠하다] 등과 같이 해석된다. 이때 ‘-어야만덩’은 [조건]·[긍정적 결과]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긍정적 결과]는 문면에는 실현되지 않지만 문맥적으로 추론되며 후행절의 결과 사



태와 반대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에서 [긍정적 결과]의 함축은 '-어야만뎡' 접속 구성의 문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화 차원에서 이 [긍정적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후기에 이르면 '-기의만뎡'과 같은 원인 접속어미 '-기의'에 '만뎡'이 통합한 예도 보이고, 고소설에 오면 '조건/원인접속어미 + 망정이지'도 확인되는데, 이 접속 구성에서 추론되는 [긍정적 결과]는 관습화하여 점차 개별 의미로 확립하게 된다. 즉, '-어야만뎡'의 [조건]·[긍정적 결과]가 분석적으로 인식되어 [조건어미+만뎡]과 유사한 논리적 인과관계를 가진 [원인어미+만뎡]에 확장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접속어미+만뎡]의 '만뎡'이 [긍정적 결과]를 가진 형태로 재분석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조건/원인접속어미 + 망정이지'와 같이 '망정'에 계사와 접속어미 '-지'가 통합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 5. 결론

이 글에서는 중세국어 '만뎡'의 분포적 특성을 검토하고, 그 통시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세국어 '만뎡'이 나타나는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세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해석되는 [양보]의 의미 특성을 밝힐 수 있었다. 이후 통시적 변천 과정에서는 '만뎡'이 독특한 의미 특성을 보이는 예들을 검토하여 현대국어 의존명사 '망정'과의 의미적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장에서는 현대국어 양보 접속어미 '-을망정'과 의존명사 '망정'과의 의미적 차이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존명사 '망정'의 구문적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의존명사 '망정'은 선행 구성이 접속 구성으로 나타난다. '-기에', '-니', '-니까', '-어서' 등과 같은 원인 접속절이 선행하고 그 뒤에 '망정'이 통합한다. 둘째, 담화 차원에서 '망정'은 선행하는 원인 접속절에 대한 긍정적 결과 사태로서 해석된다. 이 긍정적 결과 사태를 풀어서 제시하면 '괜찮거나 잘된 일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인데 무엇에 대해 괜찮거나 잘된 일이라는 것은 담화

에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원인 접속절의 긍정적 결과 사태를 나타내는 ‘망정이지’ 구성은 후행문과 반대되는 의미 관계를 이룬다. 즉, ‘망정이지’ 구문은 [[원인+망정이지][조건+결과]]을 취하는 일이 많은데, 이때 ‘망정이지’는 후행하는 [조건+결과]의 결과 사태와 반대되는 사태를 나타낸다.

3장에서는 중세국어 ‘만덩’을 세 가지 유형적 특성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관형사형어미 ‘-을’ + ‘만덩’]의 형식이다. 이 유형은 기원적으로 관형 구성이 [양보]의 의미가 관습화하여 굳어진 형식으로 [양보]의 의미를 가진 접속어미로 쓰인다. 다음은 [접속어미 ‘-란디’, ‘-을시’, ‘-어’ + ‘만덩’]의 형식이다. 이 유형은 접속어미에 ‘만덩’이 결합한 형식으로 [양보]의 의미를 가진 접속어미로 쓰인다. 마지막은 [명사 + ‘만덩’]의 형식이다. 이 경우는 앞서 살펴본 ‘만덩’의 예와 다르게 명사에 직접 통합하며 ‘다른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정도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접속어미보다는 보조사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세 유형에서 [양보]의 의미가 모두 도출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앞서 검토했듯이 이 세 유형에서 공시적으로 ‘만덩’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만덩’이 결합된 구성에서 [양보]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것은 ‘만덩’이 [양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4장에서는 근대국어 ‘만덩’의 후대형들을 통해서 그 쓰임을 검토하였다. ‘-을만덩’의 경우는 [양보]의 의미가 그대로 근대국어에까지 이어왔으나 ‘란디만덩’이나 ‘을시만덩’은 근대국어에 와서 점차 소멸의 시기를 견게 되었다. 한편, ‘-어야만덩’은 새롭게 발달한 형태로서 흥미로운 변화의 길을 견게 되는데, ‘-어야만덩’이 접속구성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을 잇는 접속어미로 쓰일 때 [~해야 망정이지 ~하면 ~어떠하다] 등과 같이 해석된다. 이때 ‘-어야만덩’은 [조건]·[긍정적 결과]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긍정적 결과]는 문면에는 실현되지 않지만 문맥적으로 추론되며 후행절의 결과 사태와 반대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에서 [긍정적 결과]의 함축은 ‘-어야만덩’ 접속구성의 문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화 차원에서 이 [긍정적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의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후기에 이르면 ‘-기의만덩’과 같은 원인 접속어미 ‘-기의’에 ‘만덩’이 통합한 예도 보이고, 고소설에 오면 ‘조건/원인접속어

미 + 망정이지'도 확인되는데, 이 접속 구성에서 추론되는 [긍정적 결과]는 관습화하여 점차 개별 의미로 확립하게 된다. 즉, '-어야만뎡'의 [조건]·[긍정적 결과]가 분석적으로 인식되어 [조건어미+만뎡]과 유사한 논리적 인과관계를 가진 [원인어미+만뎡]에 확장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접속어미+만뎡]의 '만뎡'이 [긍정적 결과]를 가진 형태로 재분석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조건/원인접속어미 + 망정이지'와 같이 '망정'에 계사와 접속어미 '-지'가 통합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제어 : 접속어미, 만뎡, 을망정, 양보, 조건, 원인, 의존명사

투고일(2016. 4. 25), 심사시작일(2016. 4. 28), 심사완료일(2016. 5. 17)

## 참고문헌

-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사상과 서법』, 탑출판사.  
 \_\_\_\_\_(1987),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_\_\_\_\_(199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권재일(1985a),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_\_\_\_\_(1985b), 「중세 한국어의 접속문 연구」, 『歷史言語學』, 전예원.  
 \_\_\_\_\_(1986), 「형태론적 구성으로 인식되는 복합문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 15.  
 \_\_\_\_\_(1988), 「접속문 구성의 변천 양상」, 『언어』 13-2.  
 \_\_\_\_\_(1991), 「한국어 접속문 연구사」, 『언어학 연구사』(김방한 편), 서울대 출판부.  
 김송원(1988), 『15세기 중기 국어의 접속월』, 박사학위논문(건국대 대학원).  
 김영희(1988), 「등위 접속문의 통사적 양상」, 『한글』 201·202[김영희(1998)에 재수록].  
 \_\_\_\_\_(1991), 「중속 접속문의 통사적 양상」, 『서재극박사 환갑기념논문집』, 계명대 출판부[김영희(1998)에 재수록].  
 \_\_\_\_\_(1998), 『한국어 통사론을 위한 논의』, 한국문화사.  
 김윤신(2013), 「생성어휘부 이론과 함성성의 기제」, 『한국어 의미학』 41.  
 남윤진(1989), 「15세기 국어의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대 대학원).  
 리의도(1989),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박용찬(1996), 「‘마른’, ‘-건마른’, ‘컨마른’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1.  
 \_\_\_\_\_(2006), 『15세기 국어 연결 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 대학원).  
 박재연(2011),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기술의 메타연구 연구: ‘양보, 설명, 발견’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국어학』 62.  
 \_\_\_\_\_(2014),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확장에서의 환유와 은유」, 『국어학』 70.  
 \_\_\_\_\_(2015), 「한국어 어미 결합에서 나타나는 비합성적 의미 해석」, 『언어와 정보 사회』 26.  
 박철우(2003),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화제와 초점』, 역락.  
 서종학(1983), 「15세기 국어의 후치사 연구」, 『국어연구』 53.  
 서태룡(1979), 「내포와 접속」, 『국어학』 8.  
 안병희·이광호(2001), 『中世國語文法論』, 학연사.  
 윤평현(1989), 『국어의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전남대 대학원).  
 이기문(1972), 『改訂 國語史 概說』, 민중서관.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승녕(1981), 『중세국어문법론』, 을유문화사.

- 이승욱(1973), 『국어 문법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_\_\_\_\_(1997), 『국어 형태사 연구』, 태학사.  
 이현희(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신구문화사.  
 임홍빈·장소원(1995), 『國語文法論·1』,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장요한(2010), 『15세기 국어 접속문의 통사와 의미』(국어학총서 67), 태학사.  
 \_\_\_\_\_(2014), 「국어 '-ㄴ덩'류 접속어미의 통시적 연구: 중세국어 '-ㄴ덩' 접속어미의 문법을 중심으로」, 『국어학』 72.  
 장윤희(1991), 「중세국어의 조건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04.  
 정재영(1992), 「통합형어미 '-ㄴ든'과 '-ㄴ더'에 대한 고찰」, 『국어학』 22.  
 \_\_\_\_\_(1996), 『의존명사 'ㄷ'의 문법화』(국어학총서 23), 태학사.  
 정한테로(2014), 「단어형성과 의미 합성성: 통합 관계와 계열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4.  
 최윤지(2008), 「한국어 분열문의 의미 연구: 정보구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서울대 대학원).  
 최재희(1991), 『국어 접속문 구성 연구』, 탑출판사.  
 하귀녀(2005), 『보조사의 통시적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 대학원).  
 허원욱(1993), 『15세기 국어 통어론』, 샘문화사.  
 허 옹(1975), 『우리 옛 말본』, 샘문화사.  
 황선엽(1995), 「15세기 국어 '-으니'의 용법과 그 기원」, 『국어연구』 135.  
 Bynon, T.(1977),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 Press[최전승 옮김(1995), 『歷史言語學』, 한신문화사].  
 Comrie, B.(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Basil Blackwell.  
 Cristofaro, S.(2003), *SUBORDIN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oley, W. A and R. D. Van Valin, Jr.(1984), *Functional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pper, Paul. & Traugott, E. C.(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김은일·박기성·채영희 옮김(1999), 『문법화』, 한신문화사].  
 Lambrecht, K.(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rk Aronoff & Kirsten Fudeman(2005), *What is Morphology?*, Blackwell[김경란 옮김(2005), 『형태론』, 한국문화사].  
 Kuno, S.(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Pastuchowa, Magdalena.(2011), "Lexicalization and grammaticalization-similarities and differences", 『동유럽연구』 27.

Robert, J.(1979),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MIT Press.

Traugott, E. C. & E. KÖNIG.(1991), *Semantics-pragmatics of grammaticalization revisited*, in Traugott & HEINE EDS, 189-218.

Whaley, Lindsay J.(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The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 Sage.

<Abstract>

A Historical Study on the Korean Connective Endings(2)  
– On the Morphosemantic Properties and Historical Change of the Middle  
Korean ‘mandyeong’ –

Jang Yo-han\*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morphosemantic properties and historical change of the Middle Korean ‘mandyeong’. First, I examined the meaning difference in connective ending ‘-lmangjeong’ and dependent noun ‘mangjeong’. This meaning difference poses just as fundamental a problem for the morphosemantic properties and historical change of the Middle Korean ‘mandyeong’. Second, I sorted this Middle Korean ‘mandyeong’ according to form. The first is form of [adnominalizing ending ‘-l’ + ‘mandyeong’]. The second is form of [connective ending ‘-randɿ, -lsɿ, -eo + ‘mandyeong’]. The third is form of [noun + ‘mandyeong’]. But The three forms includes distinctive element. It is a semantic [concessive]. This semantic [concessive] appears in this three forms. Third, I examined the historical change of the Early Modern Korean 'mandyeong'. The Middle Korean ‘mandyeong’ develop into [-lmangjeong] and [-eoya # mangjeong+i+jɿ] in the Early Modern Korean. [connective endings # mangjeong+i+jɿ] came from reanalysis of [-connective endings+mangjeong].

**Key Words** : connective endings, mandyeong, lmandyeong, concessive, conditional, causal, dependent noun

---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eimyung University.